

김선중(호남신대)

1. 머리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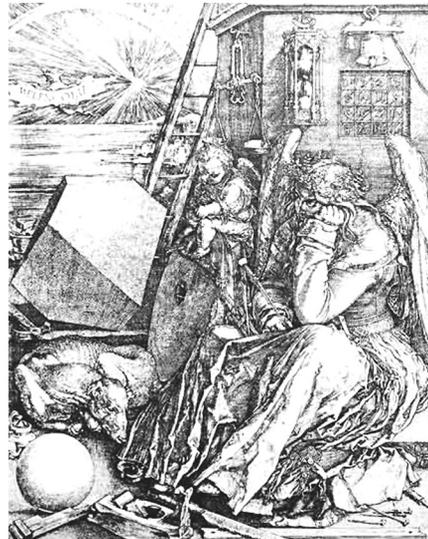
사람은 죽음을 향해 달려가는 존재이다. 죽음을 생각하며 슬픔과 애수, 우울한 감정을 지니고 살아간다. 이러한 의미에서 우울증(depression)은 사람이 일반적으로 겪는 병리 현상이고, 우울한 정서를 포괄하는 멜랑콜리아(melancholia)는 인간실존의 본질과 뿔 수 없다.¹ 예술가들은 삶을 통해 경험하는 감

* 이 논문은 2017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한 연구 (NRF-2017S1A5A2A01023626)이고, 2020년 10월 16일(금) 온라인으로 진행된 제114차 한국구약학회 추계학술대회에서 발표한 것을 수정하고 보완한 것이다. 귀한 논찬을 해주신 박경식 박사님에게 고마운 마음을 전한다.

1 앤드류 솔로몬, 『한낮의 우울』(민승남 옮김), (서울: 민음사, 2017), 653은 우울증(depression)과 멜랑콜리아(melancholy)를 동의어로 본다. 원제는 A. Solomon, *The Noonday Demon: an Atlas of Depression*(New York : Scribner, 2015). 19세기의 의사 에스키롤(Esquirol)은 멜랑콜리를 편집증(monomanie)으로 대치할 것을 주장한다. 박혜정, 『멜랑콜리』, 문학의 기본 개념 23(서울: 연세대학교 대학출판문화원, 2015),

정을 작품의 주제로 삼고, 세상에 존재하는 어두운 감정을 있는 그대로 표현한다. 베토벤, 말러, 고야, 반 고흐, 카프카 등 많은 천재 예술가와 문학가들이 우울증을 겪은 멜랑콜리커(Melancholiker)들이기도 하다.² 우울증은 경우에 따라 사람을 죽음으로 내몰기도 하지만, 우울증을 앓는 예술가들의 작품이 일반인에게 힘과 위로를 주기도 하며 일반인이 발견할 수 없는 새로운 질서를 보여주는 사실이 매우 흥미롭다. 사람을 죽음으로 이끌 수 있는 우울증은 예술과 문학을 창조하는 창조적인 힘도 가지고 있다.³ 인간실존의 본질과 깊은 관련이 있는 멜랑콜리아에 대한 연구는 고대 희랍 시대까지 거슬러 올라가는데, 아리스토텔레스(Aristoteles)는 히포크라테스(Hippocrates)가 사람의 몸 안에 있는 체액으로 여긴 멜랑콜리아를 문학과 수사학과 예술의 측면에 적용하였다.⁴

멜랑콜리아는 철학, 심리학, 미학, 의학, 상담학 등 많은 분야에서 광범위하게 다루는 문제이다.⁵ 그런데 성서학의 분야에서는 멜랑콜리아에 대한 연



뒤러, 멜랑콜리아 I, 31cm x 26cm, 워싱턴DC, 국립미술관

153을 보라.

2 에릭 G. 윌슨, 『멜랑콜리 즐기기』(조우석 옮김), (서울: 세종서적, 2010), 123-177. 원제는 E. G. Wilson, *Against Happiness: in Praise of Melancholy*(New York: Macmillan-Farrar, Straus and Giroux, 2008).

3 김선중, “멜랑콜리아: 예술과 종교의 뿌리”, 『신학이해』 51 (2017), 128-147.

4 Aristote, *L'homme de génie et la Mélancholie. Problème XXX, 1*, trad. J. Pigeaud(Paris: Rivages, 1988).

5 자클린 세르킬리니톨레, 『멜랑콜리의 색깔들 - 중세의 책과 사랑』(김준현 옮김), (서울: 문학동네, 2012). 원제는 J. Cerquignini-Toulet, *La couleur de la mélancholie: La fréquentation des livres au XIV^e siècle 1300-1415*(Paris: Hatier, 1991); 김동규, 『멜랑콜리 미학』(서울: 문학동네, 2016) 등을 보라.

구나 활용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다. 일부 성서학자들이 예언자의 상징 행위를 정신 분석의 측면에서 다루었지만, 그것은 노이로제와 광기의 입장에서였지 멜랑콜리아의 관점은 아니었다.⁶ 성서학에서 멜랑콜리아를 다루는 것은 우울증이라고 하는 현대의 병리 현상을 성서의 인물에 적용하여 연구하는 것이 억지처럼 여겨질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입장은 고대로부터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실제적으로 존재하는 우울증 현상과 우울증의 역사에 대해 관심이 없거나, 이 현상을 가면으로 덮으려고 하는 행위로 판단할 수 있다. 인간실존의 본질에 깊이 관여하지만 그동안 주요 주제로 다루지 않은 멜랑콜리아 이론을 구약신학이 수용하여 성서 본문에 적용하는 것은 중요하고 필요한 과제이다. 루터가 종교개혁을 단행한 때로부터 삼 년 전인 1514년에 알브레히트 뒤러(A. Dürer)는 멜랑콜리아 예술의 금자탑으로 여겨지는 동판화 <멜랑콜리아 I>을 창작했고, 루터와 교신하곤 했다.⁷ 죄악과 죽음으로부터 해방을 가져오는 구원의 빛의 배후에 죽음, 슬픔, 어두움, 권태, 무기력, 허무감을 내포하는 우울의 감정 멜랑콜리아 역시 일종의 세계감(世界感)으로 지금까지 공존하고 있는 사실은 이에 대한 연구의 필요성을 역설한다.⁸

본 연구는 구약성서의 인간학에서 그동안 주목 받지 못한 멜랑콜리아 이론을 통해 인간에 대한 이해를 증진하려는 목적을 갖는다. 하나님의 형상에

6 아브라함 요수아 헤셀, 『예언자들(하)』(이현주 옮김), (서울: 종로서적, 1988), 195-216, 원제는 A. J. Heschel, *The Prophets*(New York: Harper & Row, 1962).

7 줄리아 크리스티바, 『검은 태양: 우울증과 멜랑콜리아』(김인환 역), (서울: 동문선, 2004), 152, 원제는 J. Kristeva, *Soleil noir: dépression et mélancolie*(Paris: Gallimard, 1987). 흥미를 위한 전기작가들의 과장이 라는 비판이 있기는 하지만, 에릭 에릭슨, 『청년루터』(최연석 역), (서울: 크리스찬 다이제스트, 1997). 원제는 E. H. Erikson, *Young Man Luther: A Study in Psychoanalysis and History*(New York: Norton, 1958); 김동훈, “죽음을 부르는 질병인가, 인간 실존의 근원적 조건인가?: 서구의 철학사, 의학사, 예술사, 신학사 전체를 관통하는 멜랑콜리아 개념에 관한 총체적 고찰 - 고대에서 르네상스, 종교개혁까지”, 『철학논총』 76 (2014), 268은 루터가 죄와 구원의 문제에 골몰하여 우울증에 시달리기도 하였다고 주장한다.

8 김홍중, “멜랑콜리아와 모더니티 - 문화적 모더니티의 세계감(世界感) 분석”, 『한국사회학』 40 (2006), 1-31.

따라 지음 받은 인간(창 1:26)이 가지고 있는 고난과 슬픔의 어두운 측면을 분석하고,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이 고통으로 탄식하는 현상(렘 7:20; 9:10-11; 롬 8:18-22)을 고찰한다.⁹ 둘째로, 현대인이 겪는 우울증의 원인과 현상과 극복을, 우울증 현상을 보이는 구약성서의 인물에 비추어 원인론(etiology)적으로 이해하려는 것이다. 멜랑콜리아는 단지 사람이 경험하는 현상이 아니라, 세상의 구조에 맞서 싸우는 신학적이고 존재론적이며 형이상학적인 차원을 가지고 있다. 셋째로, 이 연구는 예언서와 성문서에 나오는 탄식 현상을 현대적인 관점과 언어로 이해하려는 것이다. 멜랑콜리아의 시각에서 욕을 분석함으로써, 이들의 종교적 천재성 배후에 있는 어두운 이면을 이해하고 그들의 신학을 보다 입체적으로 파악하려고 시도한다. 이것은 욕의 인물상을 재구성하는 동시에, 욕이 제기하는 인간상을 드러내기 위한 것이기도 하다. 한 개인으로서 욕의 모습을 통해 인간의 보편적인 모습을 도출하는 것이 가능한 근거는 탄식하는 주체를 욕 개인뿐 아니라, 이스라엘 공동체, 더 나아가 오늘날 탄식하는 공동체로 볼 수 있는 점에서 그러하다.¹⁰ 이 글에서는 우선적으로 욕의 경우를 다루고, 다음 연구에서는 예레미야의 경우를 다룬다.

이 연구는 위의 연구 목적을 이루기 위해 철학과 문학과 미학과 예술 이론으로서의 멜랑콜리아를 성서 해석을 위해 활용할 것이다. 그런데 이 방법은 단지 성서 본문이 문학과 예술에 끼친 영향사(Wirkungsgeschichte)나 수용사(Rezeptionsgeschichte)의 차원에서 성서 본문을 이해하기 위한 것만은 아니다. 계몽주의 시대 이후 역사비평 성서해석이 출현하기 이전부터 성경은 끊임없

9 철학과 역사와 문화 심리학 등에 기초한 인간학에 대한 개괄을 위해서는 이용호, “구약성서 인간론의 연구사: H. W. 볼프(H. W. Wolf)의 전과 후의 연구사적 스케치”, 『구약논단』 62 (2016), 218-249를 보라.

10 특별히 구스파보 구띠에레스, 『욕에 관하여: 하느님 이야기와 무죄한 이들의 고통』(김수복, 성찬성역), (칠곡: 분도출판사, 1996)의 경우가 그러하다. 원제는 G. Gutiérrez, *Hablar de Dios desde el sufrimiento del inocente*(Lima: Instituto Bartolomé de Las Casas, 1985).

이 해석되어 왔다는 점에 주목한다. 성서학이 신학에서 독립 분과로 자리매김하기 전부터 철학가와 문학과와 예술가는 나름의 해석 방식과 예술적 영감으로 성경을 해석해 왔다. 그러므로 이 연구는 성서 해석이 신학자만의 전유물이 아니라는 입장에서 출발하며,¹¹ 심리학과 예술 철학의 분야에서 활용된 멜랑콜리아 이론을 욕기를 이해하는 데 적용할 것이다. 이러한 연구 방법은 욕기가 속한 지혜문학을 연구하는 데 적절한 방법이다.

아래에서는 멜랑콜리아 이론을 어떻게 성서 본문에 적용할 수 있는지, 멜랑콜리아의 개념을 살펴본다. 그리고 프로이트(Freud)와 19세기 멜랑콜리아 문학이론의 전문가인 프랑스 문학가 스타로뱅스키(Starobinski)의 멜랑콜리아론, 또한 뒤러의 ‘욕과 그의 아내’의 작품에 비추어 욕기를 분석할 것이다. 이 연구는 욕기의 형성사의 관점에서 역사비평의 방법을 전제로 하지만, 멜랑콜리아의 이론에 따라 욕의 심리와 존재론적 상태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욕기의 최종 본문의 가치를 중요시할 것이다.

2. 멜랑콜리아의 어원과 관련어, 개념사

멜랑콜리아는 ‘멜라스’(μέλας)와 ‘콜레’(χολή)의 합성어로, ‘검은 담즙’을 뜻한다.¹² 히포크라테스는 멜랑콜리아를 사람의 몸에 있는 체액으로 조율중

11 발터 니그, 『렘브란트: 영원의 화가』(윤선아 옮김), (철곡: 분도출판사, 2008), 14. 원제는 W. Nigg, *Rembrandt: Maler des Ewigen*(Zürich: Artemis Verlag: 1951); 리차드 빌라데서, 『신학적 미학: 상상력, 아름다움, 그리고 예술 속의 하나님』(손호현 역), (서울: 한국신학연구소, 2001). 원제는 R. Viladesau, *Theological Aesthetics: God in Imagination, Beauty, and Art*(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1999); 게라두스 반 데르 레우후, 『종교와 예술-성과 미의 경계에 대한 현상학적 이해』(윤이훈 역), (서울: 열화당, 1996). 원제는 원제 G. van der Leeuw, *Sacred and Profane Beauty: The Holy in Art*(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2006).

12 ‘콜레’는 칠십인역에서 25회 나타나는데, 그 가운데 개신교 정경에는 신 29:17(한글 18); 32:32; 시

등 기분에 영향을 끼치는 일종의 호르몬에 해당하는 것으로 여겼고, 약물을 통해 치료해야 한다고 주장한다.¹³ 보통 ‘우울증’으로 옮겨지는 멜랑콜리아를 고대 희랍 사람들은 검은 담즙이 지나치게 분비되어 발생하는 현상으로 여기고, 멜랑콜리아가 영혼에는 우울증을, 몸에는 간질병을 일으킨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멜랑콜리아는 우울증과 간질병뿐 아니라, 우수와 애수, 사랑과 죽음과 관련되어 있는 넓은 개념이다.¹⁴

사람들은 시대에 따라 멜랑콜리아를 다르게 이해해 왔다. 희랍 신화와 문학에 따르면, 멜랑콜리아 기질을 가지고 있는 멜랑콜리커는 신에게 미움과 벌을 받아 미치고, 신과 사람에게 버림받아 방황하며, 자기를 확대하는 경향을 보이는데,¹⁵ 정해진 자신의 운명과 맞서 싸우는 비극적 영웅으로 나타나기도 한다. 이 글이 다루는 욥은 이러한 멜랑콜리커로서의 특징을 지니고 있다. 욥은 자신이 하나님과 사람에게 버림받았다고 생각했고, 자신의 도덕적 질서와 자신을 둘러싼 존재론적 질서가 일치하지 않는 것으로 괴로워했다.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욥 1:1, 8; 2:3)로서 자신이 재산을 잃고 가정이 파괴되며 병에 걸리게 된 것이다. 그러나 욥은 세 친구들의 회개 요청에 굴복하지 않은 믿음의 영웅이다.

아우구스티누스(Augustinus) 이래로 기독교 정신이 만연한 중세에는 멜랑

68:22(한글 69:21); 잠 5:4; 욥 16:13; 20:14; 렘 8:14; 9:14(한글 15); 애 3:15, 19 등에 10번 나타난다. 욥기에 2번, 예레미야에 2번, 애가에 2번 나타나는데, 우리말로 ‘독, 쓰다, 쓸개, 쑥, 담즙’ 등으로 번역된다.

13 P. Dandrey, *Anthologie de l'humeur noire: Écrits sur la mélancolie d'Hippocrate à l'Encyclopédie, Le Promeneur*(Paris: Gallimard, 2005), 26-27. 그러나 해부학에 따르면 이러한 체액은 실제로는 존재하지 않는다.

14 우울증과 멜랑콜리아의 개념, 그들의 개념사를 위해서는 로버트 버턴, 『우울증의 해부』(이창국 옮김), (서울: 테학사, 2004); 앤드류 솔로몬, 『한낮의 우울』(민승남 옮김), (서울: 민음사, 2004); J. Radden(ed.), *The Nature of Melancholy: From Aristotle to Kristeva*(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2005)를 보라. 줄리아 크리스테바, 『검은 태양: 우울증과 멜랑콜리』, 20은 우울증과 멜랑콜리의 경계가 불분명하여 ‘멜랑콜리적-우울증적’이라고 부를 수 있는 총제로 간주한다.

15 호메로스, 『일리아스』(천병희 역), (서울: 단국대학교출판부, 1996), 6권, 200-203행.

콜리아를 종교적으로 해석하여 원죄와 관련지어 죄악시하였고, 우울한 감정을 신의 사랑과 은총에 대해 기쁨을 누리지 못하는 상태로 여겼다. 12세기의 힐데가르트 폰 빙엔(Hildegard von Bingen)은 아담이 죄를 범한 후 멜랑콜리아가 그를 덮쳤고, 그것이 모든 자손에게 대물림되었다고 주장하였다.¹⁶ 당시 서양 기독교는 멜랑콜리아가 가지고 있는 게으름, 무관심, 무의미, 권태, 무감각, 나태의 측면을 ‘아케디아’(acedia)라는 이름으로써 부정적으로 부각시켰고, 이것을 수도승이 빠질 수 있는 위험한 상태로 여겨 노동을 강조했다.¹⁷ 이성이 지배했던 근대에는 멜랑콜리아를 강박증세로 이해했고, 미셸 푸코(Foucault)는 이성중심주의 시대에 대하여 정신 장애인을 병원에서 치료하지 않고 감옥에 가둔 ‘감옥의 역사’로 평가한다.¹⁸ 그러나 현대에 접어들면서 여러 철학자와 미학자와 심리학자는 멜랑콜리아를 현대의 고독한 사람들이 겪는 것으로 파악하는 동시에, 고대 희랍의 영웅적 특성을 되살려 진리를 파악하고 아름다움을 창작하는 근원이 되는 정신으로 고양시키기도 하였다.¹⁹

멜랑콜리커 가운데에는 공상가 또는 망상가와 같은 병적인 멜랑콜리커와 신성한 멜랑콜리커가 있다. 멜랑콜리아는 고통에서 절규하는 행위인데, 이것은 삶에 애착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증명하며, 구원을 이루는 첫걸음에 해당한다. 멜랑콜리커는 정상 또는 중심의 밖에 위치한 경계인, 주변인이다.²⁰ 그러나 창조적 멜랑콜리커는 은유 제작 능력을 가지고 있고, 상상력의

16 J, Starobinski, *L'endcre de la mélancolie*(Paris: Seuil, 2012), 59-61; 김익진, “프랑스 고전주의 시대에 멜랑콜리의 수용과 인식 - 문학치료적 관점에서-”, 『프랑스어문교육』 31 (2009), 390; 김동훈, “죽음을 부르는 질병인가, 인간 실존의 근원적 조건인가?: 서구의 철학사, 의학사, 예술사, 신학사 전체를 관통하는 멜랑콜리 개념에 관한 총체적 고찰 - 고대에서 르네상스, 종교개혁까지”, 264.

17 아케디아를 이겨내기 위해 수도승들이 읽은 성서 구절들을 위해서는 에바그리우스 폰티쿠스, 『안티레티코스: 악한 생각과의 싸움』(허성석 옮김), (철곡: 분도출판사, 2014), 163-181.

18 미셸 푸코, 『광기의 역사』(김부용 역), (서울: 인간사랑, 1997). 원제는 M. Foucault, *Histoire de la folie à l'âge classique*(Paris: Gallimard, 1976).

19 김동규, 『멜랑콜리아: 서양문화의 근원적 파토스』(파주: 문학동네, 2014), 27.

20 김동규, 『멜랑콜리아: 서양문화의 근원적 파토스』, 51.

비상 능력을 지니고 있다. 이들은 기존 질서를 거부하고 새로운 질서를 찾아 나선다. 프로이트는 멜랑콜리커가 진실을 더 날카롭게 직시한다고 본다.²¹ 그래서 자유를 찾기에 고독하다. 하이데거(Heidegger)는 멜랑콜리아를 죽음의 불안에 대한 용기라고 부르는데,²² 멜랑콜리커가 가지고 있는 이러한 특징은 탄식시의 시인과 예루살렘의 중심부에서 벗어나 성전 설교를 외친 예레미야, 교조주의적 신앙에서 억압당하는 읍을 떠올리게 한다.

3. '산다는 것이 이렇게 괴로우니'(욥 10:1전, 『새번역』): 읍의 멜랑콜리아

읍의 멜랑콜리아를 한 마디로 표현해 주는 구절은 욥기 10장 1절 전반절에 나오는 '산다는 것이 이렇게 괴로우니'(『새번역』)인데, 이 연구가 특별하게 주목하는 본문은 읍의 탄식에 해당하는 3장과 29-31장, 또한 에필로그에 해당하는 42장이다. 이들 본문은 멜랑콜리커로서 읍의 면모를 특징적으로 드러낸다.

1) 1-3장의 흐름 안에서 살펴보는 3장의 생일 저주

읍기는 산문으로 이루어진 1-2장의 프롤로그와 42장 7-17절의 에필로그 사이에, 읍과 더불어 그의 세 친구들, 엘리후와 하나님의 대화나 독백이 운문의 형태로 삽입되어 그 짜임을 이루고 있다(3:1-42:6). 최근까지도 읍기 안에

21 지그문트 프로이트, "슬픔과 우울증", 『무의식에 관하여』, 프로이트 전집 13, 윤희기 역(서울: 열린책들, 1998), 243-270; Radden, J., (ed.), *The Nature of Melancholy: From Aristotle to Kristeva*(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2005), 281-294.

22 김동훈, "죽음을 부르는 질병인가, 인간 실존의 근원적 조건인가? 서구의 철학사, 의학사, 예술사, 신학사 전체를 관통하는 멜랑콜리 개념에 관한 총체적 고찰 - 로버트 버튼에서 슬라보예 지젝까지", 『철학논총』 80 (2015), 126.

서의 기록 연대에 대해 논쟁이 되는 엘리후 단락(32-37장)을 빼면, 욥이 자신의 생일을 저주하는 탄식(3장)과 과거와 현재와 앞으로의 다짐으로 이루어진 마지막 탄식(29-31)이 운문부의 앞뒤를 감싸고 있다.

이러한 욥의 탄식을 바르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3장을 1-3장의 흐름 안에서 읽어야 한다.²³ 17세기 문학가 보베(Beauvais)에 따르면, “희극은 슬픈 시작을 행복한 종결로 변형시키는 문학이지만, 비극은 행복한 시작을 슬픈 종결로 이끄는 문학”²⁴이라는 점에서, 3장은 욥의 행복을 보도하는 1장의 빛에서 읽어야 제대로 이해할 수 있다. 자료비평과 편집사의 입장에서 산문부와 운문부가 최종 단계에서 서로 다른 자료가 나중에 합쳐졌다는 단순한 인식으로는 욥의 인물의 복잡성을 이해하기 힘들다. 산문부가 행복한 욥을, 운문부가 불행할 욥을 소개한다는 식의 이해는 복잡다단한 인간의 심리를 설명하기에는 단순화된 도식에 머무른다.²⁵

욥기 3장에서 욥은 예레미야 20장에도 나타나듯이 자신의 생일을 저주한다.²⁶ 욥과 예레미야나 바울(롬 7:19-25) 같은 성경의 위대한 신앙인이 그들이

23 김재구, “욥 1-3장: 욥기 전체를 푸는 열쇠”, 『구약논단』 13 (2007), 92-106 참조.

24 발터 벤야민, 『독일 비애극의 원천』, 한길그레이트북스 101, 최성만, 김유동 옮김(과주: 한길사, 2009), 112에서 재인용. 원제는 W. Benjamin, *Ursprung des deutschen Trauerspiels*(Frankfurt-am-Main: Suhrkamp Verlag, 1993). 욥기 29-31장은 이러한 과거의 행복(29장)과 현재의 불행(30장)을 대조시키고 있다.

25 욥기에 대한 심리학적 해석을 위해서는 D. Merker, “Psychotherapeutic Change in the Book of Job”, J. H. Ellens and W. G. Rollins (eds.), *Psychology and the Bible: A New Way to Read the Scriptures, Vol. 2. From Genesis to Apocalyptic Vision* (Westport, Connecticut - London: Praeger, 2004), 119-139; 이경재, 『욥과 케 보이: 현대사상에서 욥을 읽다』(서울: 대한기독교서회, 2009)의 6, 9, 10장을 보라. 욥기의 문학 구조와 통일성의 문제를 위해서는 하경택, “욥과 욥기의 문제: 욥기의 연구사에 관한 소고”, 『한국기독교신학논총』 31 (2004), 52-68을, 톨 부분과 대화 단락의 문헌비평적 구분에 대한 반대의 입장을 견지하는 문헌을 위해서는 만프레드 외밍, 콘라드 슈미트 공저, 『욥의 길 - 고난에 멈추다 그리고 고난으로부터 건다 -』(임시영 역),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2017), 35의 각주 24를 보라. 원제는 M. Oeming, K. Schmid, *Hiobs Weg: Stationen von Menschen im Leid*(Neukirchen-Vluyn: Neukirchener Verlag, 2001).

26 E. L. Greenstein, “Jeremiah as an Inspiration to the Poet of Job”, John Kaliner and Louis Stulman eds., *Inspired Speech*, 98-110 참조. 예레미야와 욥의 상관관계는 이어지는 논문에서 다룰 연구 과제이다.

겪는 고난이나 갈등으로 인하여 죽음을 갈망하는 것이 의미심장하다.²⁷ 많은 사람들은 삶에 대해 성경이 늘 긍정적인 태도를 요구한다고 생각한다. 대표적으로 그리스도인은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범사에 감사해야 한다는 가르침이 그러하다. 그리스도인의 삶의 윤리의 기초로 여긴다. 하지만 데살로니가전서 5장에서 말하는 바울의 가르침은 그 앞 장에 나오는 휴거, 곧 임박한 종말론의 빛에서 이해해야 한다. 고난으로 대표되는 종말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의 윤리를 말한다. 비록 전체 성경의 인물 가운데 읍처럼 노골적으로 죽음을 갈망하는 사람들이 많이 나오지 않지만, 삶의 의미, 죽음, 허무함 등에 대한 가르침은 아래로부터 위로의 방법을 통해 삶의 현실을 가감 없이 폭로하는 지혜문학에서 자유롭게 행해질 수 있다.

에레미야와 읍의 삶에는 멜랑콜리아에 대한 프로이트의 정신분석의 흐름이 나타난다. 프로이트에 따르면, 사람은 자신이 사랑하는 대상을 잃으면 나르시시즘적으로 퇴행하게 되고 사랑의 대상을 증오하게 되며, 그리하여도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자기를 학대하고, 자신을 원망하며 저주하게 된다.²⁸ 다음 단락에서 더 자세히 살펴보겠지만, 이러한 모든 요소가 읍의 삶에 나타난다. 읍을 멜랑콜리아의 관점에서 분석했다고 말하기보다, 오히려 읍이 멜랑콜리커의 전형으로 보인다. 물론 고대 문학 안에 존재하는 인물로서의 읍을 오늘날 심리학이 정의하는 인물인 멜랑콜리커인지 아닌지를 입증하는 것은 가능하지 않다. 하지만 앞에서 이미 말한 것처럼 멜랑콜리커로서 읍은 하나님과 사람에게 버림받았다고 생각하여 소외감을 느끼지만, 세 친구들이 요구하는 세상의 질서에 편입하지 아니하고 자신만의 고유한 제3의 길을 추구한다. 이 점에 신명기 신학, 정통 교리와 맞서는 읍기 신학의 가치가

27 G. Theissen, *Psychological Aspects of Pauline Theology*, trans. J. Galvin(Edinburgh: T. & T. Clark, 1987).

28 지그문트 프로이트, “슬픔과 우울증”, 261; 오형엽, “멜랑콜리의 문학비평적 가능성 - 정신분석 비평의 관점에서 -”, 『비평문학』 38 (2010), 381.

있다. 프로이트의 입장을 따르는 크리스테바(Kristeva) 역시 멜랑콜리아는 인간이 갖게 되는 아무 것도 아닌 것, 곧 죽음으로 회귀하려는 본능, 죽음충동과 관련이 있다고 주장한다.²⁹

그런데 욱은 자신의 고난을 해결하기 위해 단지 자신의 생명 이전의 상태로 돌아가기를 원하지 않는다. 세상이 창조 이전의 상태로 돌아가기를 바란다(욱 3:4).³⁰ 현재의 잘못된 존재론적 질서를 받아들이지 않는다. 빛이 있으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창조질서에 대하여 욱은 어두움이 있으라고 말하여 창조질서에 정면 대항한다. 『개역개정』과 『새번역』과 『공동번역』은 욱기 3장 4절의 일부를 각각 ‘(그 날이) 캄캄하였더라면,’ ‘(그 날이) 어둠에 덮여서,’ ‘(그 날이여), 어둠에 뒤덮여’로 옮기고 있지만, 히브리어로는 ‘어둠이 있으라’(**וְהָיָה חֹשֶׁךְ**)에 해당한다. 이 구절은 창세기 1장 3절에서 ‘빛이 있으라’(**וְהָיָה אֵר**)고 하신 하나님의 명령에 직접적으로 도전한다.³¹

나중에 욱기 38-41장에서 욱의 소환을 받고 욱에게 나타나신 하나님은 욱의 질문에 대답하지 않으신다. 반대로 욱에게 창조에 대한 질문을 수사의문문 형태로 쏟아 부으신다.³² 사람이 우주만물의 중심이 아니기에, 자신 중심으로 세상이 돌아가지 않는다고 탄식한 욱을 가르치신다. 욱의 자기중심주의, 인간중심주의를 깨뜨리신다. 욱기 38-41장에서 하나님께 대항하는 욱은 하나님의 창조질서를 위협하는 베혜못과 동일시된다.³³ 욱이 하나님을 만나

29 줄리아 크리스테바, 『검은 태양: 우울증과 멜랑콜리』, 43-46.

30 욱기의 창조신학을 위해서는 안근조, “욱과 베혜못 그리고 리위야단: 하나님의 두 번째 응답(욱 40-41)에 대한 수사비평적 읽기”, 『신학사상』 126 (2004), 57-78; 안근조, “욱기 38-41장의 신언설의 이해와 문학전승사적 위치”, 『구약논단』 20 (2006), 147-166; 하경택, “욱 발언의 창조모티브 고찰”, 『구약논단』 18 (2005), 105-126을 보라.

31 더 자세한 분석을 위해서는 M. Fishbane, “Jeremiah IV 23-26 and Job III 3-13: A Recovered Use of the Creation Pattern”, VT 21 (1971), 151-167을 보라.

32 욱기에 나타난 수사의문문의 기능을 위해서는 안근조, “욱기 38-41장의 신언설의 이해와 문학전승사적 위치”, 156-159를 보라.

33 안근조, “욱기 38:12-15에 나타난 새벽 여명의 신학적 의미”, 『신학연구』 69 (2016), 23-24.

고 하나님의 창조질서를 깨닫게 되는 것³⁴이 욱의 회복이지, 욱이 다시 자식을 얻고 재산을 두 배로 얻게 되는 것이 욱기가 말하는 회복은 아니다. 회복에 대한 뒤엣것의 이해는 신명기 신학에 근거한 것으로, 욱기가 문제 삼는 신명기 신학으로 회귀하는 것이다. 물질과 건강의 회복이 욱기가 말하는 회복이라면, “신은 표면적으로는 욱의 손을 들어 주었지만, 내용적으로는 친구들의 손을 들어 준 것”³⁵에 해당한다. 욱이 하나님을 만나기 전,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은 비합리적인 비극적 구조로, 인과응보라고 하는 세상의 기계적인 질서 때문에 자신이 고난을 당하는 것으로 자신의 운명을 해석한다. 완전하고 정직하며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을 떠난, 의인 욱(욱 1:1, 8: 2:3)이 고난을 당하면 순종하는 사람에게 복을 주신다는 교리가 잘못 되었거나, 하나님의 의로운 하나님이 아니다. 하나님이 의로우시고 행위 회복 관계, 죄와 벌의 인과율이 옳은 것이라면, 욱은 의인일 수 없다. 인간의 단순 논리에서 이 둘은 양립할 수 없다. 어느 하나는 버려져야 한다. 하나님의 의로우심과 욱의 고난은 모순율에서나 가능하다.³⁶ 욱은 순종에 따른 복, 불순종에 따른 벌이라는 단순논리를 거부한다.

멜랑콜리커로서 욱은 하나님을 만나 문제를 해결하기 전까지는 스스로 자신의 운명과 이러한 세계관을 극복해야 하고 새로운 질서를 찾아 나선다. 이러한 단순 논리에 맞서 ‘욱에의 응답’에서 욱(Jung)은 기독교의 신은 반대의 극을 포함하는 ‘모순적 일치’ 또는 ‘모순적 복합’의 존재이어야 한다고 주장한다.³⁷

34 안근조, “욱과 베레못 그리고 리워야단: 하나님의 두 번째 응답(욱 40-41)에 대한 수사비평적 읽기”, 72.

35 이경재, 『욱과 케 보이』, 198.

36 욱의 현실과 인과응보 교리의 충돌, 이에 대한 전통적인 해석 방식에 대해서는 이경재, 『욱과 케 보이』, 41-62를 보라. 이경재는 이것을 도덕적 질서와 우주적 질서의 충돌로 본다.

37 칼 구스타프 욱, 『인간의 상과 신의 상』(한국음연구원 C. G. 욱 저작 번역위원회 옮김), (서울: 솔, 2008), 295. 원제는 C. G. Jung, *Menschenbild und Gottesbild*(Zürich: Walter Verlag, 1992).

2) 나르키소스(narcissos), 노스탤지어(nostalgia), 멜랑콜리아(욘 29-31)

하틀리(Hartley)는 욘기 29-31장이 욘기 3장과 유사한 기능을 한다고 주장하는데, 그의 논증은 매우 탄탄하다. 3장이 욘의 탄식에 뒤이어 세 친구와의 말싸움을 가져오는 머리말 기능을 하고, 29-31장 또한 욘의 탄식 뒤에 하나님과의 말싸움을 가져오는 머리말 기능을 한다는 점에서 그러하다.³⁸

욘기 29-31장은 욘기 38장의 하나님의 현현 전에 욘이 마지막으로 행하는 탄식을 담고 있다. 3장에서 자신의 생일을 저주하는 탄식과 함께 이 단락은 4-28장에 나오는 욘과 세 친구의 말다툼(4-27장)과 지혜 찬미시(28장)를 감싼다. 이것은 욘기의 몸말을 이루는 운문부가 욘의 탄식의 어조로 흐름이 통제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또한 내용상 4장 이하에 나오는 세 친구의 발언을 직접 인용하여 욘은 마지막 발언에서도 세 친구의 주장이 잘못되었음을 논증한다. 예를 들어, 욘기 30장 1-8절에서 욘은 5장 22절의 엘리바스, 31장 16-23절에서 욘은 22장 5-10절의 엘리바스의 주장을 논박한다.³⁹ 동시에 29-31장은 가운데 삽입된 엘리후 단락(욘 32-37)을 지나 욘기 38장에 나오는 하나님의 임재와 현현을 이끈다. 이러한 점에서 29-31장은 욘기 몸말의 처음과 마지막을 이어주는 다리 역할을 한다.⁴⁰

욘기 29-31장의 세 장은 하나의 완전한 통일체를 이룰 뿐 아니라, 각각의 장이 탄탄한 문학 구조로 이루어져 있다. 이 단락은 과거에 행복했던 욘

38 J. E. Hartley, *The Book of Job*, NICOT (Grand Rapids: Eerdmans, 1988), 386.

39 이러한 점에서 욘기 29-31장을 ‘욘의 결론적 독백’(Job’s concluding soliloquy)으로 이름붙인 H. H. Rowley, *The Book of Job*, The New Century Bible Commentary (Grand Rapids: Eerdmans, 1980), 185의 관찰은 적절하지 않다. 욘기 29-31장은 자체적으로 독립되고 단일하게 완성된 탄탄한 짜임새를 이루고 있지만, 폐쇄된 채로 독자를 질식시키지 않는다. 오히려 처음과 가운데와 마지막, 옆과 위로 스스로를 엮으로써 독자를 숨 쉬게 한다. 자세한 내용을 위해서는 김선중, “욘기 29-31장의 구조와 기능”, 『신학이해』 52 (2018), 102-121을 보라.

40 장 레베크, 『욘기: 작품과 메시지』 (김건태 옮김), (서울: 가톨릭출판사, 1998), 87. 원제는 J. Lévêque, *Job : le livre et le message*(Paris: Cerf, 2004).

(29장), 현재 불행한 욱(30장), 마지막으로 최후 변론과 앞으로의 다짐(31장)을 다룬다.⁴¹ 29장에 반복되는 ‘그 때에는’(29:3, 4, 5, 7)⁴²과 30장에 반복되는 ‘그러나 이제는(נָחַץ)’(30:1, 9, 16)이라는 표현은 행복했던 과거의 욱과 현재 고난당하는 욱을 극명하게 대조한다. 이 표현이 30장 1, 9, 16절에 세 번 나와서 30장의 짜임새를 이루는 기능을 한다. 29-31장의 세 장이 각자 나름대로의 주제를 가지고 논리적인 흐름을 이루어가는 하나의 단락을 형성한다면, 29장과 30장은 이러한 흐름을 극대화하기 위해 여러 같은 주제를 대비시킨다. 29-30장의 공통된 짜임새를 보기 쉽게 표로 나타내면 아래와 같다.⁴³

29장	30장
1절 도입	1절 도입
2-17절 복된 시절 추억(존경)	2-15절 현실의 악한 시절 경험(조롱, 수치)
18-20절 욱이 생명을 자랑(장수)	16-24절 욱의 쇠퇴와 죽음 경험
21-25절 말의 대가(왕과 같은 다스림)	25-31절 애곡의 대가(구결하는 신세)

욕의 현재의 삶이 괴로운 것(30장)은 과거에 누구보다 행복을 누리고 존경을 받았기 때문이다(29장). 29장 4절에 따르면 욱의 행복의 근원에 하나님께서 계시다. 그러나 30장 11, 23절은 하나님이 욱의 고난의 근원에 계시다고 말하며, 1-31절에서 욱은 하나님이 자신으로부터 숨으시고 오히려 자신의 적대자들과 공모하고 계신다고 생각한다.

욕의 내면에는 현대 심리학의 흐름이 나타난다. 욱기 29장이 욱의 과거에 대한 노스텔지어⁴⁴를 보이고, 30장에서 과거와 현재가 극심하게 대비되는 멜

41 P. van der Lugt, *Rhetorical Criticism and the Poetry of the Book of Job*, Oudtestamentische Studiën (Leiden - New York - Köln: Brill, 1995), 332.

42 히브리 본문에서는 전치사 **כִּנְיָ**에 해당한다. 욱기 29장이 신명기 신학에 대해 가지고 있는 관련을 위해서는 조한근, “욱기 29장에 나타난 신명기 신학적 윤리규범에 관한 연구”, 『구약논단』 49 (2013), 262-292를 보라.

43 안근조, 『하나님의 지혜 초청과 욱의 깨달음』 (용인: 킹덤박스, 2012), 187.

44 ‘노스텔지어’는 1688년 호퍼(J. Hfer)가 ‘귀환’을 뜻하는 그리스어 노스투스(nostor)와 ‘병’이나 ‘고

랑콜리아 현상을 일으킨다면, 31장에서는 이러한 괴리를 극복하고 자신의 자아를 지키려고 하는 의지가 드러나는 점에서 그렇다. 욕기 29장에서 욕은 자신만만했던 과거의 모습을 사랑하는 나르키소스로 나타나고, 30장에서는 화려했던 과거에 비해 현재 처절한 고난을 겪는 멜랑콜리커로 나타나는데, 우울증은 곧 나르키소스의 감추어진 얼굴에 해당한다.⁴⁵ 자아 안에 자신에 대한 사랑과 증오가 극심하게 공존할 때, 멜랑콜리아 현상이 발생하게 되는데, 크리스테바는 위의 내용을 근거로 욕을 우울증 환자로 여긴다.⁴⁶ 심리학의 측면에서 멜랑콜리아 이론에 따르면 멜랑콜리아는 노스텔지어, 곧 지난 시절의 그리움의 대상에 도달할 수 없다는 좌절감에서 생겨난다.⁴⁷ 스타로뱅크는 현재의 자아와 과거 또는 미래의 자아의 대비, 존재와 의식 사이의 괴리가 멜랑콜리의 근본적 원인이라고 진단한다. 스타로뱅크는 멜랑콜리아를 심리학적이고 문학적인 차원에서의 존재론과 형이상학의 차원으로 고양시키고 있다.⁴⁸ 이러한 분석을 따르면, 욕이 겪는 고난은 단지 개인이 겪는 고난이 아니라, 세상의 질서와 자신의 올바른 삶의 괴리를 폭로한다. 또한 욕은 자신의 고난에서 단지 자신의 문제를 발견하는 것에 머무르지 않고, 사회적 관계, 사회적 약자에 대한 문제를 창조신학적으로 이해하게 된다(31:13-15).

¹⁵만일 남종이나 여종이 나와 더불어 쟁론할 때에 내가 그의 권리를 저버렸다면

통'을 뜻하는 알고스(algos)를 합성시켜 명명했다. 임철규, 『고전: 인간의 계보학』(서울: 한길사, 2016), 633을 보라.

45 줄리아 크리스테바, 『검은 태양: 우울증과 멜랑콜리』, 15-16.

46 줄리아 크리스테바, 『검은 태양: 우울증과 멜랑콜리』, 233.

47 김동훈, “죽음을 부르는 질병인가, 인간 실존의 근원적 조건인가? 서구의 철학사, 의학사, 예술사, 신학사 전체를 관통하는 멜랑콜리 개념에 관한 총체적 고찰 - 로버트 버튼에서 슬라보예 지젝까지”, 117; 임철규, 『고전: 인간의 계보학』, 633-639.

48 장상숙, “스타로뱅크의 멜랑콜리 연구에 나타난 시간의 주관성”, 『한국프랑스학논집』 34 (2001), 274. J. Starobinski, *L'endcre de la mélancolie*(Paris: Seuil, 2012) 등을 보라.

¹⁴하나님이 일어나실 때에 내가 어떻게 하겠느냐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에 내가 무엇이라 대답하겠느냐 ¹⁵나를 태 속에 만드신 이가 그도 만들지 아니하셨느냐 우리를 뱃속에 지으신 이가 한 분이 아니시냐(욥 31:13-15, 『개역개정』)

욥기 29장과 30장이 각각의 장에서 나름대로 정교한 문학적인 짜임새를 가지고 있다면, 마지막으로 욥이 최후 변론을 하는 욥기 31장은 내용상으로 ‘그가 마음으로 저지르지 않은 죄(1-12절)’, ‘이웃에게 저지르지 않은 죄(13-23절)’, ‘하나님께 거슬러 저지르지 않은 죄(24-34절)’로 이루어져 있다. 이처럼 주제의 측면에서 논리적인 흐름을 가지고 있는 동시에, 욥기의 저자는 30:1-12에서 욥이 저지르지 않은 죄를 14가지, 곧 완전수 7의 두 배를 의도적으로 나열함으로써 자신의 의가 완전했음을 암시적으로 표현한다.⁴⁹

29-30장에서 자신의 과거와 현재를 비추어 본 욥은 38장에서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 최후 변론을 한다. 욥은 30장 1-12절에서 자신이 마음으로 저지르지 않은 죄의 목록을 나열하는데, 여기에는 음욕과 원수사랑 등의 십계명의 내용이 반영되어 있다. 또한 욥은 자신이 이웃과 하나님께도 죄를 짓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이러한 주장을 통하여 욥은 자신의 삶을 압박하는 인과응보 사상, 교조주의의 전통 사상이 더 이상 효력이 없다고 항변하며 그 장벽을 뛰어넘으려 한다. 존재론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소환한다(욥 31:35).

3) 멜랑콜리아의 극복: 알브레히트 뒤러의 ‘욥과 그의 아내’ (1504)

이 글은 단지 욥의 삶에 나타난 멜랑콜리아의 요소를 분석하는 것을 목적으로 삼지 않는다. 욥이 멜랑콜리아를 어떻게 극복했고, 자신의 고난 경험을

49 J. G. Janzen, *Job, Interpretation: A Bible Commentary for Teaching and Preaching* (Atlanta: John Knox Press, 1985), 212-213. 이러한 죄가 십계명을 반영하는가에 대한 논쟁을 위해서는 안근조, “욥기 31장에 나타난 구약성서의 윤리”, 『구약논단』 36 (2010), 71-91 등을 보라.

어떻게 공동체의 신학의 차원으로 승화시켰는가를 분석하려고 시도한다. 욥은 하나님을 만난 다음에 모든 슬픔과 우울과 괴로움을 던져버렸는가? 욥의 결말은 단순한 해피엔딩인가? 이 질문에 답하기 위해서는 욥기의 에필로그를 정경 이후 위경과 예술에 나타난 영향사와 수용사의 관점에서 살펴봐야 한다.

위경인 『욥의 유언서』(Testament of Job)는 욥이 병에서 치유되지 않은 상태로 이야기를 전개한다. 정경에서 욥은 에필로그에서 다시 자녀를 얻고, 두 배의 재산을 얻지만, 병이 나았다고 명시되지는 않는다. 자식을 잃은 욥이 다시 자녀를 얻은 것을 가지고 자식에 대한 상처가 회복되었다고 말할 수 없다. 욥의 회복을 말한다면, 다시 신명기 신학으로의 회귀를 말하게 된다.⁵⁰ 욥기의 에필로그에 욥의 아내가 등장하지 않지만, 욥의 유언서에서는 욥과 자녀들을 사랑하는 아내의 모습으로 나온다는 점 역시 흥미롭다.⁵¹ 이사야처럼, 바울처럼, 욥 또한 질병 가운데 죽음을 맞이하지만, 참된 구원과 회복의 메시지를 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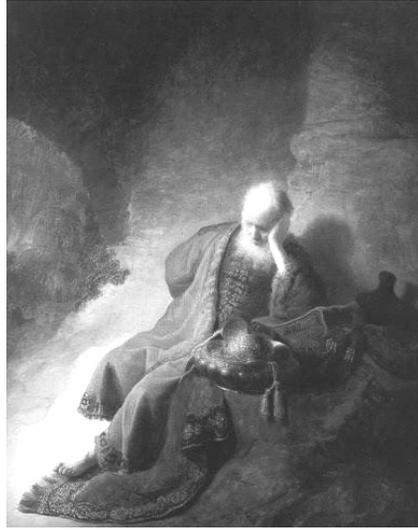
프랑크푸르트의 야바흐(Jabach) 제단화에 그려져 있는 알브레히트 뒤러의 ‘욥과 그의 아내’(p.31 왼쪽 그림)에는 뒤러의 <멜랑콜리아 I>과 램бран트의 ‘예루살렘의 멸망을 슬퍼하는 예레미야’(p.31 오른쪽 그림)와 같은 특징이 나타난다. 욥은 왼쪽 팔꿈치로 얼굴을 괴고 있다. 주인공의 뒤에는 집이 불타고 있는데, 시간의 전후 관계가 한 폭의 그림 안에 동시에 펼쳐지고 있다. 무표정한 욥의 아내가 심한 피부병으로 몸에 열이 오른 남편의 몸을 식혀주기 위해 물을 끼얹고 있는 것을 보면, 뒤러는 욥의 아내를 악처로 이해하지 않는

50 자세한 내용을 위해서는 Sun-Jong Kim, “La maladie de Job (Jb 2,7b)”, *Cahiers bibliques* 48, *Foi et vie* 108 (2009), 80-94를 보라.

51 K. Low, *The Bible, Gender, and Reception History: The Case of Job's Wife*(London - New York: T & T Clark, 2013)는 초기 기독교에서 현대에 이르기까지 예술가들이 욥의 아내를 어떻게 이해했는가의 문제를 수용사의 관점에서 다룬다.



알브레히트 뒤러, 욥과 그의 아내, 1504년, 94x51cm, 프랑크푸르트 아바흐 제단화



렘브란트, 예루살렘의 멸망을 슬퍼하는 예레미야, 1603년, 58x46cm, 암스테르담 국립미술관

다. 욥의 아내는 뒤러가 살던 당시 뉘른베르크의 옷을 입고 있는데, 이것은 작가가 욥의 멜랑콜리아를 자기화하여 이해했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당시 작센 지역은 전염병이 창궐하고 있었는데, 욥의 아내는 당시 고통 받는 사람들에게 위안을 주기 위한 목적으로 그려져 있다.⁵² 위경에서도 욥의 아내는 남편과 자식들을 먹여 살리기 위해 자신의 머리카락을 잘라 파는 아내로 등장한다.

정경 욥기는 욥이 심한 피부병(קַדַּח)으로 괴로워하며 고통을 경감시키기 위해 몸을 긁는다고 전하지만(욥 2:7), 뒤러는 욥을 고통 받는 사람보다는 깊은 생각에 잠긴 몽상가로 표현하고 있다. 이 그림은 작가가 앞서 제작한 ‘슬픔에 찬 사람 그리스도’(p.32 그림)의 모델을 따르는데, 십자가를 진 그리스도

52 성은진, 『미술과 성서』(서울: 예경, 2103), 152.

역시 고통과 괴로움에 가득 찬 얼굴이 아니라 묵상하고 명상하는 멜랑콜리커의 모습을 가지고 있다. 그런데 예수는 자신의 얼굴을 바라보는 사람을 응시함으로써,⁵³ 마치 사람들을 자신의 묵상에 초청하고 있는 듯하다. 우울증을 겪는 사람은 고통을 겪는 사람과 동일시함으로써, 고통이 고통을 치유할 수 있다는 깨달음을 얻게 된다.⁵⁴ 독자들은 성경에 나타나는 인물의 고통을 통하여 자신의 고통이 승화되는 카타르시스를 경험한다.



알브레히트 뒤러, 슬픔에 찬 사람, 그리스도, 1493년, 30x19cm, 카를스루에 주립미술관

물론 지혜문학으로서의 욕기에 예언의 전승도 흐른다.⁵⁵ 그러나 욕의 문제는 단순히 예언의 차원에서 정의와 공의를 이루는 것에서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영성의 차원, 곧 하나님을 만나는 하나님의 임재에서 해결된다.⁵⁶ 멜랑콜리아에 대한 극복은 멜랑콜리

53 J. L. Koerner, *The Moment of Self-Portraiture in German Renaissance Art*(Oxford - London: University of Chicago Press, 1993), 19.

54 임철규, 『눈의 역사 눈의 미학』(서울: 한길사, 2004), 421-430. 김혜윤, “‘엘리후의 연설’에 드러난 시문학적 기법들과 하느님의 교육: 욕기 36,5-15을 중심으로”, 『가톨릭신학과사상』 61 (2008), 193-194는 고난 받는 사람의 구원은 그 고난을 통해 이루어진다는 가르침을 엘리후 단락이 준다고 주장한다. 이러한 가르침도 멜랑콜리아 연구 주제를 발전시키는 데 기여할 수 있다.

55 박철우, “소명기사(이사야 6장)의 관점에서 재고된 욕기 38-42장의 중심내용”, 『구약논단』 52 (2014), 94-126; 안근조, “욕기 38-41장의 신언설의 이해와 문학전승사적 위치”, 147-153.

56 구스타보 구떼에레스, 『욕에 관하여: 하느님 이야기와 무죄한 이들의 고통』(김수복, 성찬성 역), (철곡: 분도출판사, 1996). 프리드리히 니체, 『비극의 탄생』(곽복록 역), (서울: 범우사, 2002), 21은 유대-기독교가 사람이 겪는 고난을 제거하고 고난에서 도망할 도피처를 제공한다고 주장하는데, 이것은 고통의 신학에 대한 몰이해에 근거한다. 원제는 F. W. Nietzsche, *Die Geburt der Tragödie oder Griechentum*

아와 대면하여 침잠(沈潛)함으로 가능하다. 일반인이 걸어가는 길을 따라 걷지 않고, 자기에게 주어진 유일한 길을 걷는다. 그것이 신이 자기에게 준 길로 받아들인다. 그리하여 그동안 발견하지 못했던 새로운 제3의 길을 만든다.

종교와 예술은 단지 신학자와 예술가가 사물을 객관의 차원에서 대상화하여 판단하지 않고, 자기화한다. 뒤러는 옅과 예수를 통해, 렘브란트는 예레미야를 통해 자신의 내면을 드러낸다. 그림을 그리는 화가가 작품의 주인공이 되어, 자신과 독자들을 치유한다. 성서 주석도 마찬가지이다. 주석가는 성서 본문을 읽고 성서의 내용을 이른바 객관적으로, 과학적으로, 역사적으로 밝히는 것만을 목표로 하지 않는다. 성경에 나타나는 인물을 통하여 그 인물에 자신을 투영시키며 자신의 내면이 반영되고 치료되는 과정을 겪는다.

4. 맺음말

슬픔과 우울, 이 둘을 포괄하는 개념인 멜랑콜리아는 모든 사람이 가지고 있는 성질이다. 흔히 사람들은 슬픔과 우울감을 사람을 병들게 하는 부정적인 성질로 생각하여, 피하고 억압하고 감추어야 하는 것으로 여긴다.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라는 바울의 가르침을 기독교의 일반 윤리로 생각하는 경향에서 더욱 그러하다.

멜랑콜리아의 기질을 가지고 있는 멜랑콜리커는 시대에 따라 다른 평가를 받아 왔다. 고대 희랍 시대에는 비극의 운명에 맞서는 영웅으로 여겨졌

und Pessimismus(Hofenberg, 2016).

고, 기독교가 세계관을 지배한 중세에는 신앙인이 피해야 할 게으름, 악덕으로 인식되었다. 그러나 현대에 들어와 멜랑콜리아가 바르게 통제되고 활용될 때, 창조적인 힘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재평가되고 있다. 멜랑콜리아라는 현실적 상황에 대한 올바른 해석이 창조적인 힘을 갖게 되는 것이다. 우울증이나 고난을 겪는 사람은 멜랑콜리아에 대한 새로운 해석을 통해 자신이 겪는 현실을 새롭게 이해하고 수용할 수 있다.

욥기를 멜랑콜리아 이론에서 읽을 때, 이 책의 신학을 더욱 입체적이고 현실적으로 이해할 수 있다. 욥은 구약의 대표적인 멜랑콜리커이다. 그는 하나님과 사람에게 버림받았다고 생각했고, 과거에 대한 노스탤지어를 가지고 살았다. 화려했던 옛날을 그리워했다. 이러한 노스탤지어로 현재 자신이 겪는 불행이 더 극대화되었다. 그러나 욥은 잘못을 뉘우치고 회개하여 전통 신앙을 받아들이면 다시 행복해질 것이라고 말하는 세 친구, 교조주의자들에 맞서 싸운다. 하나님에게마저 저항하여 하나님을 법정에서 소환한다. 자신이 의롭기에 하나님이 잘못된 것으로 여긴다. 자신에게 강요하는 교리는 자신의 고난과 불행을 설명하지 못하여 폐기 처분해야 하는 틀이었다.

욥은 하나님께 순종하면 복 받고, 불순종하면 벌 받는다는 기계론적인 세계관이 더 이상 자신에게 적용되지 않음을 깨닫는다. 그러한 결정론적 세계관은 하나님마저도 가둘 수 있다. 그렇다면 외롭고 고독한 멜랑콜리커로서의 욥은 전통 신학이 설명하지 못하는 새로운 사상과 세계상을 제시해야만 한다. 자신의 현실, 도덕이 세상의 질서에 충돌할 때, 자신이 겪는 슬픔과 불행과 고난 역시 받아들이고 살아내야 하는 삶의 현실임을 보여준다. 고난은 회피하여 이겨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고난을 겪어냄으로 이겨 낼 수 있다. 욥에게 참된 보상은 고난과 고난에 대한 교조주의적 이해와 맞서 싸우는 가운데, 자기중심주의와 인간중심주의적인 편협한 생각에서 벗어나게 하신 하나님을 만나게 된 점이다.

5. 참고문헌

- 게라두스 반 데르 레우후, 『종교와 예술 - 성과 미의 경계에 대한 현상학적 이해』
(윤이흠 역), (서울: 열화당, 1996). 원제 van der Leeuw, G., *Sacred and Profane
Beauty: The Holy in Art*(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2006).
- 구스따보 구띠에레스, 『옴에 관하여: 하느님 이야기와 무죄한 이들의 고통』(김수복,
성한성 역), (철곡: 분도출판사, 1996). 원제 Gutiérrez, G., *Hablar de Dios desde
el sufrimiento del inocente*(Lima: Instituto Bartolomé de Las Casas, 1985).
- 김동규, 『멜랑콜리아: 서양문화의 근원적 파토스』(과주: 문학동네, 2014).
_____, 『멜랑콜리 미학』(서울: 문학동네, 2016).
- 김동훈, “죽음을 부르는 질병인가, 인간 실존의 근원적 조건인가?: 서구의 철학사,
의학사, 예술사, 신학사 전체를 관통하는 멜랑콜리 개념에 관한 총체적 고
찰 - 고대에서 르네상스, 종교개혁까지”, 『철학논총』 76 (2014), 255-274.
_____, “죽음을 부르는 질병인가, 인간 실존의 근원적 조건인가?: 서구의 철학사,
의학사, 예술사, 신학사 전체를 관통하는 멜랑콜리 개념에 관한 총체적 고
찰 - 로버트 버튼에서 슬라보예 지젝까지”, 『철학논총』 80 (2015), 113-137.
- 김선중, “멜랑콜리아: 예술과 종교의 뿌리”, 『신학이해』 51 (2017), 128-147.
_____, “욥기 29-31장의 구조와 기능”, 『신학이해』 52 (2018), 102-121.
- 김익진, “프랑스 고전주의 시대에 멜랑콜리의 수용과 인식 - 문학치료적 관점에서
-”, 『프랑스어문교육』 31 (2009), 387-405.
- 김재구, “욥 1-3장: 욥기 전체를 푸는 열쇠”, 『구약논단』 13 (2007), 92-106.
- 김창대, “창조 모티프의 틀에서 본 예레미야의 새언약”, 『성경과 신학』 41 (2007),
35-66.
- 김혜윤, “엘리후의 연설’에 드러난 시문학적 기법들과 하느님의 교육: 욥기 36,5-
15을 중심으로”, 『가톨릭신학과사상』 61 (2008), 192-224.
- 김홍중, “멜랑콜리와 모더니티 - 문화적 모더니티의 세계감(世界感) 분석”, 『한국사
회학』 40 (2006), 1-31.
- 리차드 빌라데서, 『신학적 미학: 상상력, 아름다움, 그리고 예술 속의 하나님』(순호

- 현 역), (서울: 한국신학연구소, 2001). 원제 Viladesau, R., *Theological Aesthetics: God in Imagination, Beauty, and Art*(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1999).
- 만프레드 외밍, 콘라드 슈미트 공저, 『옴의 길 - 고난에 멈추다 그리고 고난으로부터 걷다 -』(임시영 역),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2017). 원제 Oeming, M., Schmid, K., *Hiobs Weg: Stationen von Menschen im Leid*(Neukirchen-Vluyn: Neukirchener Verlag, 2001).
- 미셸 푸코, 『광기의 역사』(김부용 역), (서울: 인간사랑, 1997). 원제 Foucault, M., *Histoire de la folie à l'âge classique*(Paris: Gallimard, 1976).
- 박철우, “소명기사(이사야6장)의 관점에서 재고된 옴기 38-42장의 중심내용”, 『구약논단』 52 (2014), 94-126.
- 박혜정, 『멜랑콜리』, 문학의 기본 개념 23(서울: 연세대학교 대학출판문화원, 2015).
- 발터 니그, 『렘브란트: 영원의 화가』(윤선아 옮김), (철곡: 분도출판사, 2008). 원제 Nigg, W., *Rembrandt: Maler des Ewigen*(Zürich: Artemis Verlag: 1951).
- 발터 벤야민, 『독일 비애극의 원천』, 한길그레이트북스 101, 최성만, 김유동 옮김 (파주: 한길사, 2009). 원제 Benjamin, W., *Ursprung des deutschen Trauerspiels* (Frankfurt-am-Main: Suhrkamp Verlag, 1993).
- 성은진, 『미술과 성서』(서울: 예경, 2103).
- 아브라함 요수아 헤셀, 『예언자들(하)』(이현주 옮김), (서울: 종로서적, 1988). 원제 Heschel, A. J., *The Prophets*(New York: Harper & Row, 1962).
- 안근조, “옴과 베혜못 그리고 리위야단: 하나님의 두 번째 응답(옴 40-41)에 대한 수 사비평적 읽기”, 『신학사상』 126 (2004), 57-78.
- _____, “옴기 38-41장의 신언설의 이해와 문학전승사적 위치”, 『구약논단』 20 (2006), 147-166.
- _____, “옴기 31장에 나타난 구약성서의 윤리”, 『구약논단』 36 (2010), 71-91.
- _____, 『하나님의 지혜 초청과 옴의 깨달음』(용인: 킹덤북스, 2012).
- _____, “옴기 38:12-15에 나타난 새벽 여명의 신학적 의미”, 『신학연구』 69 (2016), 7-31.
- 앤드류 솔로몬, 『한낮의 우울』(민승남 옮김), (서울: 민음사, 2017). 원제 Solomon, A., *The*

- Noonday Demon: an Atlas of Depression(New York : Scribner, 2015).
- 에릭 에릭슨, 『청년루터』(최연석 역), (서울: 크리스찬 다이제스트, 1997). 원제 Erikson, E. H., *Young Man Luther: A Study in Psychoanalysis and History*(New York: Norton, 1958).
- 에릭 G. 윌슨, 『멜랑콜리 즐기기』(조우석 옮김), (서울: 세종서적, 2010). 원제 Wilson, E., *Against Happiness: in Praise of Melancholy*(New York: Macmillan-Farrar, Straus and Giroux, 2008).
- 오형엽, “멜랑콜리의 문학비평적 가능성 - 정신분석 비평의 관점에서 -”, 『비평문학』 38 (2010), 374-399.
- 이경재, 『옴과 케 보어: 현대사상에서 옴을 읽다』(서울: 대한기독교교회회, 2009).
- 이기웅, 김성택, “‘슬픔’의 토포스들 - 러시아의 ‘toska’와 프랑스의 ‘mélancolie’ -”, 『한국프랑스논집』 83 (2013), 67-92.
- 이용호, “구약성서 인간론의 연구사: H. W. 볼프(H. W. Wolff)의 전과 후의 연구사적 스케치”, 『구약논단』 62 (2016), 218-249.
- 임철규, 『눈의 역사 눈의 미학』(서울: 한길사, 2004).
- _____, 『고전: 인간의 계보학』(서울: 한길사, 2016).
- 자클린 세르킬리니톨레, 『멜랑콜리의 색깔들 - 중세의 책과 사랑』(김준현 옮김), (서울: 문학동네, 2012). 원제 Cerquiglini-Toulet, J., *La couleur de la mélancolie: La fréquentation des livres au XIVe siècle 1300-1415*(Paris: Hatier, 1991).
- 장 레베크, 『옴기: 작품과 메시지』(김건태 옮김), (서울: 가톨릭출판사, 1998). 원제 Lévêque, J., *Job : le livre et le message*(Paris: Cerf, 2004).
- 장상숙, “스타로뱅스키의 멜랑콜리 연구에 나타난 시간의 주관성”, 『한국프랑스학 논집』 34 (2001), 273-296.
- 조한근, “옴기 29장에 나타난 신명기 신학적 윤리규범에 관한 연구”, 『구약논단』 49 (2013), 262-292.
- 줄리아 크리스테마, 『검은 태양: 우울증과 멜랑콜리』(김인환 역), (서울: 동문선, 2004).
- 원제 Kristeva, J., *Soleil noir : dépression et mélancolie*(Paris: Gallimard, 1987).
- 지그문트 프로이트, “슬픔과 우울증”, 『무의식에 관하여』, 프로이트 전집 13, 윤희

- 기 역(서울: 열린책들, 1998), 243-270.
- 칼 구스타프 융, 『인간의 상과 신의 상』(한국융연구원 C. G. 융 저작 번역위원회 옮김), (서울: 숲, 2008). 원제 Jung, C. G., *Menschenbild und Gottesbild*(Zürich: Walter Verlag, 1992).
- 프리드리히 니체, 『비극의 탄생』(곽복록 역), (서울: 범우사, 2002). 원제 Nietzsche, F. W., *Die Geburt der Tragödie oder Griechentum und Pessimismus*(Hofenberg, 2016).
- 하경택, “읍과 읍기의 문제: 읍기의 연구사에 관한 소고”, 『한국기독교신학논총』 31 (2004), 47-76.
- _____, “읍 발언의 창조모티브 고찰”, 『구약논단』 18 (2005), 105-126.
- 호메로스, 『일리아스』, 천병희 역(서울: 단국대학교출판부, 1996).
- Aristote, *L'homme de génie et la Mélancholie. Problème XXX, 1*. trad. J. Pigeaud(Paris: Rivages, 1988).
- Burton, R., *The Anatomy of Melancholy*(New York: New York Review Books, 2001).
- Dandrey, P., *Anthologie de l'humeur noire: Écrits sur la mélancolie d'Hippocrate à l'Encyclopédie*, Le Promeneur(Paris: Gallimard, 2005).
- Dell, K., and Kynes, W. (eds.), *Reading Job Intertextually*, LHBOTS 574(New York: Bloomsbury T&T Clark, 2012).
- Fishbane, M., “Jeremiah IV 23-26 and Job III 3-13: A Recovered Use of the Creation Pattern”, *VT* 21 (1971), 151-167.
- Janzen, J. G., *Job*, Interpretation: A Bible Commentary for Teaching and Preaching (Atlanta: John Knox Press, 1985).
- Kim, S.-J., “La maladie de Job (Jb 2,7b)”, *Cahiers bibliques* 48, Foi et vie 108 (2009), 80-94.
- Koerner, J. L., *The Moment of Self-Portraiture in German Renaissance Art*(Oxford - London: University of Chicago Press, 1993).
- Low, K., *The Bible, Gender, and Reception History: The Case of Job's Wife*(London - New York: T & T Clark, 2013).
- van der Lugt, P., *Rhetorical Criticism and the Poetry of the Book of Job*, Oudtesta-

- mentische Studien (Leiden – New York – Köln: Brill, 1995).
- Merker, D., “Psychotherapeutic Change in the Book of Job”, J. H. Ellens and W. G. Rollins eds., *Psychology and the Bible: A New Way to Read the Scriptures*, Vol. 2. *From Genesis to Apocalyptic Vision* (Westport, Connecticut – London: Praeger, 2004), 119–139.
- Radden, J. (ed.), *The Nature of Melancholy: From Aristotle to Kristeva*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2005).
- Starobinski, J., *L'endcre de la mélancolie* (Paris: Seuil, 2012).
- Theissen, G., *Psychological Aspects of Pauline Theology*, trans. J. Galvin (Edinburgh: T. & T. Clark, 1987).

검색어

멜랑콜리아

우울증

읍

탄식

뒤러

프로이트

스타로뱅스키

〈Abstract〉

Job and Melancholia

Sun-Jong Kim, Dr. en théol.

Visiting Professor, Department of Theology

Honam Theological University & Seminary

Humans are the existence who runs towards death. They live with a melancholy feeling of sadness and sorrow, thinking of life and death in their daily lives. Depression in this sense is a pathological phenomenon that people commonly experience, and melancholia, which encompasses melancholy sentiments, is inseparable from the essence of human existence. Depression sometimes drives a person to death, but works by artists suffering from depression give strength and comfort to the general public and show a new world and order that ordinary people cannot discover. Depression also has

www.kci.go.kr

the creative power in art and literature. Thus depression also has the creative power to create art and literature.

Melancholia is a subject that is widely dealt with in many areas, including philosophy, psychology, aesthetics, medicine, and counseling. However, in the field of biblical studies, little research or utilization of this subject has been made. It is very important and necessary for the Old Testament theologian to accept Melancholia's theory, which is deeply involved in the nature of human existence but has not been dealt with as a major subject.

The first purpose of this study is to promote understanding of human beings from the perspective of Melancholia, which has not been noticed in the anthropology of the Old Testament. It analyzes the dark side of suffering and sorrow that man, who is created in the image of God, and examines the phenomenon in which the world created by God groans in pains. The second purpose is to etiologically understand the causes and phenomena of depression experienced by modern people in light of people of the Old Testament who show depression. The third purpose is to understand the lament in the Old Testament from a modern perspective and language. By analyzing Job from the perspective of Melancholia, this study attempts to understand the dark side behind Job's religious genius and to gain a more three-dimensional understanding of the theology of the book of Job. This is also to reveal the anthropology of the book. The basis on which it is possible to derive a universal human character through the image of Job as an individual, is that the lamenting sub/ject can be seen through biblical exegesis not only as one individual like Job but also the Israelite community beyond him.

Keywords

Melancholia

Depression

Job

Lament

Dürer

Freud

Starobinski

- 투고일: 2020년 9월 29일
- 심사일: 2020년 10월 28일
- 게재 확정일: 2020년 10월 30일

www.kci.go.kr